

2022년 아낌없이 주는 마켓, '수원다가 나눔장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8월 25일 아낌없이 주는 마켓[수원다가 나눔장터]를 센터 내 대강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수원다가 나눔장터'는 8월 중 센터로 들어온 후원물품과 기타 홍보물품 등을 배분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장터 물품은 8월 1일 경기공동모금회

를 통해 인수한 여성용 샌들과 8월 17일 청송로터리클럽을 통해 인수한 여성용 원피스 등을 포함하여 총 6종으로 구성되었다.

방문자들을 대상으로는 2022년 상반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만족도 조사와 요구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의 연계를 통해 강의실 내 공간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취업상담소'를 열어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취업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장터를 통해 오랜기간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던 이용자들이 다

수 방문하여 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고, 추후에도 이러한 행사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센터 이용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봉호 기자

hazy109upda@naver.com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클로버재단 가족사진촬영 진행



"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 예쁜사진과 좋은 추억을 받을 수 있어 감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인클로버재단은 지난 8월 21일에 센터회원 다문화가족 20가정에게 가족사진을 선물했다.

8월21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가족사진촬영 프로그램은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에서 지원하여 20가정

에게 액자와 가족사진이 제공되었다. 사진은 가족단체사진, 아이 첫돌사진, 어르신 장수사진 등이 제공되었으며 참여한 가족은 7인이상의 대가족, 2~4인의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한 가족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로 3번째,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와 함께 하계된 인클로버재단의 한용외 이사장은 "다문화가족에게 사진이라는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보람있고 이 가족들이 매년 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라며 "수도권의 경우 2년마다 촬영이 돌아오지만 지방은 4년에 한번정도만 기회가 주어져 아쉽

다"라고 말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좋았고 뜻깊었다", "아이가 생기고 가족사진이 없었는데 예쁜사진과 좋은 추억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김가원 기자

vgraciasv@naver.com